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사업 협약식(MOU)

부위원장님 인사말씀

2020.1.21.(화) 14:00~14:30
금융감독원 1층 민원센터

금 융 위 원 회

상기 자료는 보도의 편의를 위해 제공해 드리는 것으로서 실제
발언내용은 동 자료와 다를 수 있습니다.

I. 인사 말씀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손병두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행사에 참석해 주신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상호 사무총장님,
금융감독원 이상제 부원장님,
서민금융진흥원·신용회복위원회 이계문 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사는 이번 설연휴 직후인 28일부터 시행될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 지원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법률구조공단, 서민금융진흥원이
협력과 공조를 다짐하는 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II. 추진 배경

언론이나 드라마, 영화에서도 이미 많이 다루어졌지만,
불법추심은 채무자 개인 뿐 아니라
그 가족전체를 극단으로 내모는 민생 침해범죄입니다.

또, 대부업이나 불법사금융 이용자들이
이곳 금감원 금융민원센터에 신고하시는
가장 많은 피해 유형 중 하나가 바로 이 불법추심입니다.

실제로, 2018년도 금감원 실태조사에 따르면
아직도 7만여명이 불법추심에 시달리고 있고,
가족·지인에게까지 채무 변제를 강요하는
매우 악질적인 불법추심 행위도 여전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14년부터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제도자체를 모르시거나,
아시더라도 경제적 부담 때문에 잘 이용을 못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불법추심이나 불법 고금리 등으로
이미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소송이 필요한데,
이것 역시 법률적 지식이 부족하고 경제적으로도 넉넉치 못한
서민 피해자들이 쉽사리 진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Ⅲ.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 지원 사업 안내

이번에 금융위에서 금감원·법률구조공단·서민금융진흥원과
함께 추진하는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사업」은

① 우선, 채무자가 불법추심으로 인한 피해를 겪고 있거나
관련 피해가 우려될 경우 무료로 법률구조공단 변호사를
채무자 대리인으로 선임해 드리는 것입니다.

일단 대리인이 선임되면 그 이후부터는 추심업자가
대리인을 통해서만 채무자에게 접촉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채무자가 더 이상 불법추심에 시달리지 않게 되고,

대부업자나 불법 사금융업자의 다른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할 수 있게 되어 추가적인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② 두번째로, 불법추심이나 고금리 등으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소송 변호사도 무료로 지원해 드립니다.

이를 통해, 불법행위에 대한 사전 예방 뿐 아니라, 사후적인 피해 구제 조치도 보다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③ 마지막으로, 이번 사업의 범위를 서민금융진흥원의 자활자금 지원 연계까지로 확대하여 보다 완전한 구제 및 지원 체계를 갖추 예정입니다.

불법 사금융 등으로 피해를 보고 구제를 받으신 분들도 근본적으로 생계나 자활에 필요한 자금이 확보되지 않으면 또다시 불법 사금융을 이용하고 불법추심이나 고금리 피해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사업시행을 계기로 과거에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불법사금융을 이용하셨더라도 앞으로는 정부의 서민금융 지원 사업을 통해 재기와 자립의 기회를 충분히 가지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연계해 드릴 예정입니다.

IV. 향후 계획

정부는 이번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사업」으로 올해 약 4,000여명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과 관련한 국회 예산 확보과정에서도 동 사업의 취지와 중요성에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되었던 만큼, 앞으로 추가지원 수요가 확인될 경우 예산확보 노력 등을 통해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V. 마무리 말씀

정부는 올해 시무식에서 밝힌 것 처럼 “경제는 활발해지고, 사회는 따뜻해져야”라는 모토아래 포용 금융의 역할을 더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그 일환으로 다음주부터(1/28일) 새롭게 시작되는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 지원 사업」이 불법금융에 시달리는 국민들에게 든든한 힘이 되어 드릴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참석해주신 기자 여러분들, 관계기관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홍보와 협력을 다시한번 각별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